미래차 편의·안전부품 기술고도화 '시동'

산업부 공모 선정…2030년까지 사업비 72억원 투입
전남광주-경북, 소음·진동 저감기술개발 초광역 협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손잡고 미래자동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편의·안전 부품 기술고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분원에서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고도화 사업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차년도 장비 구축과 기업 지원,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운영위원회에는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박선우 광주지역산업진흥원장, 성백섭 조선대 교수, 박준열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실장, 이철승 광주테크노파크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북도가 2025년부터 편의·안전 분야 미래차 기술 공동 기획에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22억원 등 72억원을 투입한다. 경북 사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는 242억원이다.

사업의 핵심은 전기·수소차 등 전동화 차량에서 나타나는 소음과 진동 문제를 개선할 부품 기술 개발이다.

내연기관이 없는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줄어드는 대신 노면 소음과 풍절음, 부품 마찰음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들려 탑승자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 컨슈머인사이트가 2023년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기차의 설계 미흡 관련 초기 품질 문제가 내연기관차보다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9일 한국자동차연구원 광주분원에서 '미래자동차 편의·안전 기술고도화 사업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차년도 장비 구축과 기업 지원,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광주특별시는 차량 실내 소음을 줄이는 '소음저감' 기술을, 경북 경주시는 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멀미와 진동을 완화하는 '진동저감' 기술을 각각 특화해 개발한다. 두 지역의 기술 역량을 연계해 초광역 협력 기반의 미래차 부품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광주특별시는 특히 부품 조립·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소리(BSR)를 줄이고 차량 실내 정숙성을 높이기 위해 체감형 소음저감 부품 연구와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실증 장비 4종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지역 자동차 부품기업 4곳의 사업 참여도 확정했다.

참여 기업에는 설계 검증과 신뢰성 평가 등 시험·평가부터 시제품 제작을 비롯한 기술 지도·지원, 해외 판로 개척과 수요처 확보 등 사업화까지 단계별 지원이 제공된다.

광주특별시는 사업 기간 5년 동안 총 164건의 기업 지원을 추진하고, 약 700개 기업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래차산업과장은 "전동화 전환에 따라 소음·진동 저감 등 고차원의 품질 확보가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지역 부품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미래차 핵심 편의·안전 부품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은행, 추석 중기 특별자금 1조원 편성

업체당 최대 50억원…신규자금 연 0.6%p 금리 우대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신규자금 5000억원과 만기연장 5000억원 등 총 1조원이며, 업체당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규자금에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연 0.6%p의 금리우대를 적용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제품 생산 및 납품대금 결제, 원자재 구입, 기타 운영자금 등 경영안정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기업별 자금 사정과 경영 여건을 면밀히 살펴 명절을 앞두고 필요한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성이 여신전략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이번 특별자금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현장의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든든한 금융 파트너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추석자금 숨통 틔운다…한은 300억 지원

임금·원자재대금 부담 완화…연 1.25% 적용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 지원 규모는 총 300억원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액 기준으로는 600억원 이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5억원이며, 금융기관 대출 취급액 기준으로는 10억원 이내다.

지원 대상은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할지역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관내 은행이 취급한 대출이다.

지원 대상 지역은 광주 5개 자치구를 비롯해 광양·나주·순천·여수시와 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영광·장성·함평·화순군 등이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할지역은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업과 유흥업, 약국·한약국업, 수의업 등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우량업체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방식은 해당 기간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은행은 대출액의 최대 50% 이내에서 금융기관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며, 지원금리는 19일 기준 연 1.25%다. 실제 업체별 지원 규모는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 상황에 따라 비례 배분된다.

김은지 기자 eunzy@

광주도시공사, 재난 위기관리 국가공인 인증

행정안전부 '재해경감우수기업' 재인증 획득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업무를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재해경감우수기업' 재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재해경감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능연속성계획(BCP)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재해경감 활동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행정안전부가 우수 기관에 부여하는 국가 공인 인증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22년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왔다.

그 결과 이번 한국경영인증원 등 심사기관의 갱신 심사를 거쳐 광주도시공사의 무중단 기능연속성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또한 국제표준인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ISO22301)에 대해서도 이미 성공적으로 재인증을 완료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양동민 기자 yang00@

농수산식품 해외판매장 개설
2곳 추가…24일까지 모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농수산식품의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상설판매장 2곳을 추가 개설한다.

광주특별시는 오는 24일까지 '2026년 해외 상설판매장 신규 개설 지원사업'에 참여할 해외 현지 유통매장 운영사 2곳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외 현지에서 전남광주 농수산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매장 운영사다. 전남광주 농수산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수출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사에는 소요 비용의 70% 이내에서 개소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판매장은 대형 유통매장 내 매장인 '숍인숍' 형태의 경우 20㎡ 이상, 단독매장은 40㎡ 이상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운영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개설을 마치고 판매장별로 전남광주에 소재한 10개 기업의 농수산식품 20개 이상을 수입해 입점·판매해야 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GICON, 실무형 IT 교육 콘텐츠 무료 개방

AI·iOS·빅데이터 등 60여개 강좌…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그동안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생에게만 제공해온 실무형 IT 교육 콘텐츠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GICON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원하는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전주·제주 등 호남권 4개 권역에서 축적한 교육 콘텐츠를 일반 시민에게 전면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방은 지역 교육생을 대상으로 축적해온 실무형 IT 교육 콘텐츠의 활용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디지털·IT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별도의 수강료나 가입비 없이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공개된 강좌는 60여개로, 단순 이론 교육보다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강좌는 △AI 윤리·보안·저작권 △SwiftUI를 활용한 키패드 앱 iOS 독학 △아두이노를 활용한 기상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MariaDB·HeidiSQL 클라이언트 개발 등이다.

현직 전문가가 직접 출연해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터뷰 시리즈 're'도 제공한다. 정보처리산업기사 기출문제 풀이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콘텐츠도 마련해 실전 역량 강화와 자격증 준비를 함께 지원한다.

GICON은 콘텐츠 개방을 기념해 수강 후기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무료 강좌를 1개 이상 수강한 뒤 본인 SNS에 후기를 게시하고 인증 링크를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강좌를 수강하려는 시민은 '광주ICT IS LMS'(ict-school.goorm.io)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기존 호남권 ICT이노베이션스퀘어 교육생은 물론 이전 지원자와 수료생, 신규 이용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